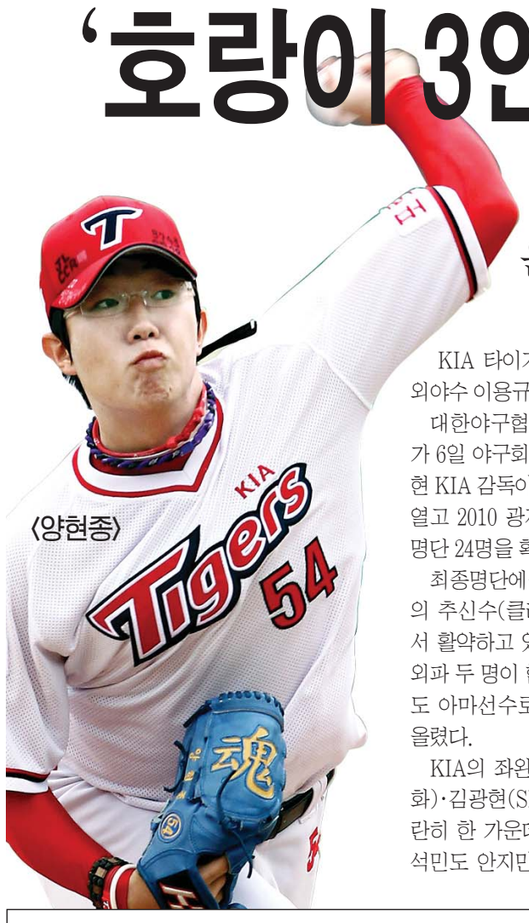
평생 잊지못할 감동이 있는 골프장!!
함평 다이너스티 컨트리 클럽
예약 : www.hpdynastycc.co.kr 080)320-7700

‘호랑이 3인방’ 광저우 AG 우승 이끈다

윤석민·양현종·이용규 등 24명 대표 발탁… 해외파 김태균·추신수도 합류


〈양현종〉

KIA 타이거즈의 투수 윤석민·양현종과 외야수 이용규가 태극마크를 달았다.

대한야구협회와 한국야구위원회(KBO)가 6일 야구회관 회의실에서 사령탑인 조범현 KIA 감독이 참석한 가운데 기술위원회를 열고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 최종 명단 24명을 확정, 발표했다.

최종명단에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추신수(클리브랜드)와 일본프로야구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태균(지바 롯데) 등 해외파 두 명이 합류했다. 중앙대 투수 김명성도 아마선수로 유일하게 대표팀에 이름을 올렸다.

KIA의 좌완 에이스 양현종이 류현진(한화)·김광현(SK)·봉중근(LG)과 이름을 나란히 한 가운데, ‘사구 논란’에 휩싸였던 윤석민도 안지만(삼성), 송은범(SK), 김명성(중앙대)과 우완 마운드에 포진했다.

윤석민은 사구논란속에 스트레스 증후군에 시달리며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되는 등 올시즌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2008 베이징 올림픽과 2009 월드베이스클래식(WBC)에서 맹활약하며 팀의 우승과 준우승을 이끈 경력이 있다.

윤석민과 올림픽과 WBC에서 호흡을 맞췄던 이용규도 김현수·이종욱(이상 두산), 김강민(SK)과 외야수 대열에 합류했다.

‘옆구리투수’로는 정대현(SK)과 고창성(두산)이 선발됐다. 음주운전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구원 1위(25세이브) 이용찬은 최종 엔트리에서 제외됐다.

1루수에는 해외파 김태균과 홈런1위 이대호(롯데)가 발탁됐고, 2루수에서는 정근우(SK) 뽑혔다. 기대를 모았던 KIA의 주전 2루수 안치홍은 명단에서 빠졌다.

핫 코너였던 3루수 부문에서는 최정(SK)과 추가 엔트리로 이름을 올렸던 조동찬(삼성)이 선발됐다. 일본 진출 후 팀내 입지가 불안한 소프트뱅크의 이범호는 탈락했다.

포수는 베테랑과 박경완(SK)과 베이징 올림픽 금메달 주역 강민호(롯데)가 뽑혔다.

프로 진출 후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게 된 양현종은 “대표팀에 선발돼 기분이 좋지만 팀 성적과 최근 성적이 좋지 않아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다. 몸 관리 잘해서 아시안게임에서 좋은 경기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표팀에서 세 번째 호흡을 맞추게 된 이용규와 윤석민은 “다시 한 번 태극마크를 달게 돼서 영광이다”며 “앞서 선배들의 도움으로 군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만큼 그걸 돌려 준다는 생각으로 대표팀에서의 활약 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금메달에 도전하는 한국의 경쟁자는 대회 2연패를 노리는 대만과 아시아 강호 일본. 대표팀은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종료 직후인 10월 25일부터 소집 훈련을 시작해 11월 9일께 결전지인 광저우로 떠날 예정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윤석민〉
〈이용규〉

두산 마무리 이용찬 음주 뺑소니 물의

AG대표팀 최종엔트리 제외

두산 베어스 마무리 이용찬이 음주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용찬은 6일 오전 2시50분께 혈중 알코올 농도 0.066%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성수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앞서가던 이모(25)씨의 세라토 승용차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용찬은 400m가량 달아나 차를 세웠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해 구원왕(26세이브)와 함께 신인왕을 거머쥔 이용찬은 전날 잠실구장에서 열린 KIA와 경기에서 승리투수가 됐었다. 이번 시즌 기록은 2승1패 25세이브다.

/연합뉴스

광주시 선수단이 6일 대전 한밭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 3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입장을 하고 있다. 종합순위 7위에 도전하는 광주는 사전경기가 진행된 대회 첫날 금메달 4개를 따내며 순항을 시작했다.

/대전=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신궁’ 기보배

월드컵 3관왕에 FITA 찬사

“조준기 2개 달린 컴파운드 부문 세계 기록 낼 수도”

중국 상하이 월드컵에서 3관왕에 오른 한국 양궁 대표팀의 ‘차세대 에이스’ 기보배(22·광주시청)에게 국제양궁연맹(FITA)의 찬사가 쏟아졌다.

FITA는 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기보배의 활약상을 주요 소식으로 다루면서 “기보배가 컴파운드 부문에서 경쟁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보배는 세트제로 벌어진 개인전 리커브 결승전에서 쿠마리 데피카(인도)를 세트점수 7-1로 완파했다. 종전 방식대로 12발 누적점수를 따지면 세계기록(윤옥희 119점)에 3점 모자란 116점을 쏘았다.

올림픽 공식종목인 리커브와 달리 컴파운드는 활 끝에 도르래가 달려 시위를 당기기가 쉽고 망원렌즈를 포함한 조준기가 2개 달려 과녁도 훨씬 잘 보인다.

리커브의 싱글라운드 144발에서 1천400점을 넘은 궁사는 박성현(1405점·2004년 아테네올림픽)이 전무후무하지만 컴파운드에서는 ‘신궁의 경지’인 1천400점이 수시로 나온다.

기보배는 지난 4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월드컵에서 여자 개인전과 단체전, 혼성경기 등을 모두 석권해 금메달 3개를 목에 걸었다.

/연합뉴스

광주 역도 남동훈 첫 3관왕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첫날

전남 동 1개… 예상밖 부진

제 3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가 6일 대전 한밭 종합운동장에서 개막해 5일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광주는 사전경기가 진행된 대회 첫날 수영종목에서 첫 금을 캔 뒤 역도에서 대회 첫 3관왕을 배출하며 순항을 시작했다. 6개 종목에 출전한 전남은 수영에서 동메달을 획득했다.

수영종목에 출전한 광주대표 채영숙(시각장애)은 자유형 100m에서 가장 먼저 결승점을 찍으며 우승을 자치했다. 채영숙과 47년생 동갑내기 단짝 친구인 김정숙도 동메달을 목에 걸며 이번 대회 광주의 선전을 예고했다.

수영에서 우대성, 윤세웅, 유규성, 서옥희의 활약으로 4개의 동메달을 보탠 광주는 역도에서 금메달 3개를 싹쓸이 했다.

역도 남동훈(시각장애)이 남자 -78kg 파워리프트, 스쿼트, 데드리프트 종목에서 각각 금메달을 획득하며 3관왕에 등극했다. 김형희(지체장애)는 여자 -60kg 벤치프레스, 파워리프팅, 웨이트리프팅 종목에서 은메달 두 개를 따냈다.

사격 종목에 출전한 박중규(지체장애)는 공기소총 입사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하며 사격종목 사상 전국체전 첫 메달을 선사했다.

대회 첫날 전남의 움직임은 저조했다. 6개종목(사격, 수영, 휠체어럭비, 보치아, 론볼, 볼링)에 참가한 전남 선수단은 수영종목에서 동메달 하나를 획득하는데 그쳤다.

여자자유형 100m에 출전한 김삼순은 3위로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전남에 첫 메달을 선물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